



Product Anatomy

서초 리뉴미피부와 양윤석 원장, F팁이 답일 때가 있다

2026.02.19 21:00 By 임민구 기자

서초 리뉴미피부와 양윤석 원장은 볼뉴머 출시 초기에 데모를 진행한 뒤 시술 편의성과 즉각적인 환자 반응을 확인하고 빠르게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두 편의 임상 논문을 발표하며 단순 사용기를 넘어 장비의 유효성을 연구로 검증했다는 점이 볼뉴머에 대한 신뢰를 키운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모노폴라 RF 시장에서 볼뉴머를 선택한 이유로는 클래시스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함께 고주파 시술의 대표적인 진입 장벽이던 통증을 낮추면서도 체감 효과는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히트 옛지 기술과 강력한 수냉식 연속 쿨링은 시술자 입장에서 안전성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도 표피 보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효과와 안전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양윤석 원장이 전하는 볼뉴머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뉴머는 언제쯤 도입하셨고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볼뉴머는 출시 초기에 바로 데모를 진행했구요. 데모를 해보니까 시술 편의성도 굉장히 좋았고 환자 반응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이어서 바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제조사인 클래시스에서 연구 논문 진행을 제안해 주셨는데 평소 저희가 임상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네트워크 원장님들과 함께 두 편의 임상 논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단순히 사용 경험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통해 장비의 유효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볼뉴머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모노플라 RF 장비가 많은데 그중에서 볼뉴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클래시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기술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라는 환자 입장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 써마지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효과는 분명히 좋지만 통증 때문에 시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볼뉴머를 직접 사용해 보니까 통증은 거의 없으면서도 효과는 써마지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최근에는 연세대학교 피부과 교실에서 써마지와 비교한 임상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통증은 더 적고 효과는 비슷하다는

선됐다고 느끼고요. 또 하나는 강력한 수냉식 연속 쿨링 시스템입니다. 분할 펄스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도 표피 보호가 잘 되다 보니까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술하시는 환자군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으신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시는 파라미터나 시술 프로토콜은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보통은 600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와 눈가 쪽은 개인적으로 F팁을 선호해서 F팁으로 약 100샷에서 200샷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양측 볼과 턱 라인 쪽에 400샷에서 500샷 정도를 배분해서 시술하는 편입니다. 에너지 파라미터는 환자의 피부 두께나 지방의 정도에 따라 조절하는데 대체로 2.5레벨에서 4레벨 정도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팁들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V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와 눈가 쪽은 F팁을 사용하고, 나머지 양측 볼과 턱 라인 쪽은 V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V팁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고, F팁은 3제곱센티미터인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V팁은 전체적인 윤곽이나 페이스라인 정리에 더 도움이 되고, 이마나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F팁이 훨씬 안정적이고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F팁만으로 전체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과거 경험에서 얻은 판단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써마지 CPT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CPT 팁이 3제곱센티미터인데 이게 볼 뉴머 F팁과 동일한 면적입니다. 이후 써마지 FLX로 넘어오면서 팁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로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볼뉴머의 V팁과 같은 사이즈죠. 제 임상 경험을 돌아보면 피부가 얇은 분들은 써마지 FLX보다 오히려 CPT로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CPT 결과를 좋아하셨던 분들께 F팁을 사용했을 때 다시 한 번 만족도가 높아지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F팁과 V팁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결국 볼뉴머는 써마지 CPT와 써마지 FLX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I팁과 S팁은 아직 임상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I팁은 주로 아이써마지 쪽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고, S팁은 바디용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아직 바디 시술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용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F팁이 3제곱센티미터면 면적이 더 작는데 그러면 시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는 않나요?

시술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전체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거의 동일해요. F팁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달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얇은 층에 에너지가 더 집중되게 들어가는데,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F팁을 다른 팁들과 비교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눈가나 이마 쪽에서는 확실히 F팁이 결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두께나 부위에 따라 F팁과

뉴머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술하실 때 주의할 점이나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돼 있어서 큰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간혹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경험상 직원들이 팁을 살짝 떨어뜨리거나 하면서 바닥에 긁혀 미세한 흠집이 생겼을 때 시술 중에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시술을 계속하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팁 상태를 항상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만의 시술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 이 장비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되는 다른 시술들과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환자분들께 시술 과정과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술이든 환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시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술들과 주로 병합해서 시술하고 계신가요?

슈링크 유니버스를 가장 많이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볼링크' 조합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결국 울써라와 써마지를 병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고객분들 중에서는 울써마지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나 통증 면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볼링크 조합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래시스의 퀴드세이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시크릿 계열 장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미나 홍조, 여드름 같은 피부 고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퀴드세이에 스킨부스터를 병합하는 방식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킨부스터로는 PDLLA 기반의 주베룩이나 엑소좀을 함께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술자의 어깨나 팔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장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시가 환자의 피부 상태를 스캔하고 분석해서 볼링크 같은 고주파나 초음파 시술을 자동으로 세팅하고 알아서 잘 짜주는 장비가 하루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이러다 오십견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라서요.